



# 정교회주보

제2516호  
2025년 3월 16일

한국 정교회 대구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사순절 제2주일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대주교  
성 사비노스 순교자  
성 율리아노스 순교자  
(제5조 • 조과 복음 5)

##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제5조 부활 찬양송 ..... 82
-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찬양송  
(비교정 축일 성가집) 25
- 성당 찬양송
- 사순절 시기송 ..... 223
- 사도경 : 히브리 1,10~2,3 ..... 229
- 복음경 : 마르코 2,1~12 ..... 138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사진 설명

## 예비 제단

**예**비 제단(사진, 서울성당)은 지성소의 거룩한 제단 왼쪽에 자리하고 있다. 이 예비 제단에서 감사의 성사를 위한 프로스코미디(봉헌 예물 준비 의식)를 진행한다.

성찬예배 전(보통 조과가 진행될 때), 제의를 입은 사제는 손을 씻고 신자들이 봉헌한 빵과 포도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준비 의식을 한다. 이렇게 준비한 빵과 포도주는 성찬예배 중에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로 변화한다.

### 예비 제단의 '봉헌 예물 준비 의식'을 위한 도구들

- \* 성반(聖盤) : 받침대가 있는 접시 모양의 성물
- \* 성작(聖爵) : 기다란 컵 모양의 성물
- \* 성창(聖槍) :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옆구리를 찌른 창 모양의 성물
- \* 성별십자 : 성작의 봉헌물을 덮는 십자가 모양의 금속 장식

(다음 주보부터 4번에 걸쳐 위의 성물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 영적 어두움

한의학 알렉산드로스 신부



오늘 복음의 내용에서는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어두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중풍 병자와 그를 들것에 눕혀 들고 온 네 사람은 사람들이 가득한 집안에 들어갈 수 없자 예수님이 계신 집안의 바로 위 지붕을 벗겨 구멍을 내고 병자를 요에 눕힌 채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중풍 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거기 앉아 있던 율법 학자 몇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하여 하느님을 모독하는가? 하느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하며 예수님을 괄시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느님이신 것을, 또 하느님으로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중풍 학자들이 들으라고 “중풍 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하는 것과 ‘일어나 네 요를 걷어 가고 걸어가거라’ 하는 것 중에 어느 편이 더 쉽겠느냐?”하시며 그들의 속을 떠보았습니다. 그리고 중풍 병자에게 “일어나 요를 걷어서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하고 말씀하시자 그는 벌떡 일어나 요를 걷어서 나갔습니다. 그러자 모두 몹시 놀라서 “이런 일은 정말 처음 보는 일이다.”하며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더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같은 권한으로

죄 사함을 하시자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을 괄시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밖의 사람들은 중풍 병자가 일어나 걷는 기적을 보자 “이런 일은 정말 처음 있는 일이다.”하며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느님이 아니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단지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 학자와 바리새인들은 하느님을 그저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라고만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들로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고, 자신들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그릇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모든 삶은 그들이 기준이 되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그들의 뜻대로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는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보다는 물질과 정신적 욕구만 채우려 하고 죄와 투쟁하며 회개하기는 싫어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와 명예를 얻어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이 마치 하느님의 축복인 양 착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택하겠냐 했을 때 그들은 영혼의 구원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바랄 것입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내일은 또 오지만  
어제는 다시 오지 않는다!

만일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리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시계의 시침과 분침, 초침을 되돌릴 것이다.

그저 누군가를 다시 안아주기 위해 시간을 멈출 것이다. 한 번, 두 번, 수십 번이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야만 내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삶과 시간은 오로지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곧,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고, 단 일 초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 내일은 또 오지만 어제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 레오 톨스토이(1828-1920)

당신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라!

사람을 이 땅에서 저 하늘로 들어올릴 수 있는 것은 날개가 아니라, 마음의 순결과 단순함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단순하고, 당신의 생각과 느낌은 순결해야만 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단순함 속에서 당신의 삶 안에 계신 그분을 발견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순결한 마음은 하늘의 문들을 쉽게 통과합니다.

- 성 암필로히오스(1889-1970)

은총이고 힘입니다!

사랑받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은총이고 힘입니다.

고마워하거나 알아주는 이 없어도 남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감사하다는 말을 듣지 않으면서 베푸는 것...

인정받지 않아도 자신을 희생하는 것...

용서받지 못했어도 용서하는 것...

자신을 거부했던 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

일이 잘못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은총이고 힘입니다!

- 세르비아의 성 저스틴 포포비치(1894-1979)

마음의 실명(失明)

바울로 사도는 무지와 '마음의 실명'(눈이 먼 상태)으로 인해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낮설게 된 이방인들처럼 되지 말라고 신자들에게 요청합니다.(에페소 4,17-18 참조)

마음의 실명은 '영적인 실명'을 뜻하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임을 '보지' 못한다면, 그는 하느님도 역시 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신 또 다른 이유이며, 그럼으로써 아무도 어둠 속에서 살거나 걸지 않게 될 것입니다.

- 요아니스 이스트라티 신부

## 사순절 예배 안내

- \* 화, 목 오후 5시  
석후대과
  - \* 수요일(3/19) 오전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 금요일(3/21) 오후 6시  
제 3 성모 기립 찬양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전 9시



## 알림

### ■ 영성 강론 모임 시간 변경 안내

대주교님의 영성 강론 줌(zoom) 모임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사순절 동안에는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서울 성당 유아 세례

지난 11일(화), 박윤식 에반겔로스, 이슬기 엘레니 부부의 차남 박하은 노아 아기가 성 막심 성당에서 임종훈 안토니오 스 신부의 집전으로 거행된 세례성사를 통해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 ■ 신간 소개

가브리리아 성인 | 가브리리아 게오르기우 지음 | 박용범 요한 옮김 | 정교회출판사 | 544쪽 | 25,000원

2023년에 정교회의 성인으로서 성인된 가브리리아 수녀(1897-1992)의 삶과 가르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인은 그리스인으로, 정교회 신앙심이 깊은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삶 속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배우고 실천하며 자랐습니다.

현명하고 온화하고 사랑 많고 유머러스한 성품이었으며,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돕는 일에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스어에서 번역된 이 책은 성인의 생애와 가르침(말씀, 경구, 서신들), 안식, 지인들의 회고를 담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그리스도교의 믿음과 가르침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성인이 전해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영성의 샘터

## 마음속 어둠을 몰아내려면

야고보스 사부가 말했다.

“등불이 어둠을 쫓아내듯이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마음속에 하느님의 계명을 심어준다.”